



2011. 10.
24.(월)

보도자료

2011년 10월 24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 | | | | |
|--------------------|-------------|-------------------|-------|
| 가. 지상파방송정책과 (2450) | 장봉진과장(2430) | 나. 뉴미디어정책과 (2350) | 김정원과장 |
| 다. 시청자권익증진과 (2350) | 박준선과장(2690) | 라. 편성평가정책과 | 권병욱과장 |

[보고안건]

- | | | | |
|-------------------|-------------|------------|-------|
| 가. 시장조사과 (2510) | 전영민과장(2630) | 나. 통신정책기획과 | 이상학과장 |
| 다. 통신이용제도과 (2350) | 최성호과장(2550) | 라. 편성평가정책과 | 권병욱과장 |

2011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 추후 재논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주)영서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등 3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주)영서방송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함

< 재허가조건 >

사업자명	재허가 조건 내용
공 통 (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허가 신청 시 제출된 디지털전환 관련 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영서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영업 행위로 시청자의 불만을 유발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사업자별 제재조치 >

대상사업자	조치내용
(주)씨앤엠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울산케이블티브이 등 2개 사업자	시정명령·과징금(1500만원) 병과 처분
(주)씨앤엠 마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북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경동케이블 티브이, (주)씨앤엠 우리케이블티브이, (주)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 (주)씨제이 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경남방송,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등 9개 사업자	시정명령
(주)씨앤엠 중랑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서서울케이블 티브이, (주)씨앤엠 강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경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용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송파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동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제이헬로비전 가이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충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금정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남인천방송(주) 등 15개 사업자	경고
(주)씨앤엠 서초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주)씨제이헬로비전 마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동방송,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등 7개 사업자	주의

라. 2011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0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의결함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 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 >

	지상파			SO	위성		PP		합 계
	TV	R	DMB		일반	DMB	보도	홈쇼핑	
사업자 수 (채널수)	47개* + 3개 (DMB전용) (TV 63개, R 155개, DMB 19개)			94개	1개	1개	2개	5개	153개 (340개)

< 방송평가 영역 : 내용, 편성, 운영 >

- 내용영역 :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자체심의 운영실적,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등
- 편성영역 :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 어린이·장애인 프로 및 재난방송 등에 대한 편성의 적절성
- 운영영역 : 경영적정성, 재무건전성, 인적자원·기술에 대한 투자,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보고안건]

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1 참조)

-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4개의 금지행위* 유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함

* ①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가구수의 75/100 이상, 올림픽·월드컵은 90/100 이상), ②실시간 방송 실시, ③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지연 금지, ④뉴스 보도·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2와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개선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장비의 국내 수요기반 확대를 독려하고, '11. 12월 방송 예정인 종편PP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 주요 내용

- **(방송수단 확보)**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수단(자가 또는 임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검증 등에 관하여 규정
- **(실시간 방송)**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야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 재난방송, 비상사태, 다수 행사로 나뉘어져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 실시간 방송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
- **(중계방송권 거래 거부·지연 금지)** 중계방송권 판매·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 하거나,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 설정 또는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거래 거부·지연 행위로 규정
 - 다만, 구매자측 제시가격·조건 등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구매자의 시설·인력 문제에 따른 방송 송출 불가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판매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 인정
- **(자료화면 제공)** 중계방송권자등이 국민관심행사의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기준을 제시
 - 올림픽·아시안게임은 1일 최소 4분 이상, 월드컵 등 단일종목은 2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

- 다만,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중계방송권 권리표시(5초이상 자막) 미이행 또는 뉴스보도·해설 등 정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향후 계획

- 고시(안) 행정예고, 부처 협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1.11월
- 고시(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위 규제심사 : '11.12월
- 고시(안)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고시안 확정 및 공포 : '12.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 (개정사유)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 추가 지정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취약계층 요금감면 현황 >

요금감면 서비스	요금감면 대상자
○ 시내·시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번호안내서비스, 초고속인터넷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中 자활사업참가자·희귀난치성환자장애(아동)/보육수당수급자 등

- (개정내용)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 인터넷전화(VoIP)는 서비스 품질개선, 번호이동성 도입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11.9월 현재 인터넷전화의 가구대비 점유율(VoIP가입자1,044만/총가구수 1,738만)은 60.1%에 달함

☞ VoIP 증가추이 : '08년말: 248만명 → '09년말: 666만명 → '10년말: 914만명 → '11.9월: 1,044만명

- (기대효과)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및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 VoIP사용자 77만명이 연 215억원(1인당 27,922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55천명이 연 57억원(1인당 103,636원)으로 연간 총 272억원의 감면효과 발생

2.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

- (개정사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 등록 시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 필요

< 별정통신사업자 현황 >

구 분	별정1호	별정2호	별정3호	별정4호
정 의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역무 제공	국내통신 사업자	(교환설비 보유 or 미보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이동통신역무 제공
기술인력 등록요건	기술계 3인↑ & 기능계 2인↑	기술계 1인↑	기술계 1인↑ & 기능계 1인↑	기술계 3인↑ & 기능계 2인↑ (보유) / 기술계 1인↑(미보유)
사업자수	41개(5.7%)	616개(84.7%)	53개(7.3%)	17개(2.3%) (합계) 727개

- **(개정내용)**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를 기술인력 요건에 추가
 - ※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은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간 연동장치, 라우터, 서비스 제어시스템 등을 조작·관리하는 역할 수행
- **(기대효과)**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별정2·4호)의 등록 부담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도 기대
 - * '10년도 기능계 자격증 합격자 총 40,687명 중 32,637명이 만 16~18세(고등학생에 해당)로 전체 합격자의 80% 이상을 차지

3. 별정부가통신사업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제도 개선

- **(개정사유)** ① 현행 '변경하려는 때'로 막연하게 되어있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 변경등록·신고사항 :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역무의 종류, 자본금·기술인력(별정에 한함)
- ② 한편,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관변경 시에는 재등록(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시점과 다른 부당한 약관에 대한 관리 수단 마련 필요
- **(개정내용)** ①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규정
- ② **MVNO(별정1·2·4호 중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등록 시 제출한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7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규제를 최소화 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MVNO에 한해 적용

 (MVNO 현황) '10. 9월 현재 18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가입자는 335천여명

- (기대효과) ① 변경등록·변경신고 기간의 명확화로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② MVNO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

4. 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

- (개정사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무단가입, 부당과금 등)를 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이용자는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 후에도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움
- (개정내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 그 이행기간*을 신설
 - * 자료보존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사실 통지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기대효과)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이용자 권리 구제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촉진

5.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 (개정사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심사기준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
 - ※ 승인대상설비 : 새로운 전기통신설비 기술방식(교환, 전송방식 등)에 의해 최초로 설치되는 설비. 단,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설비는 제외
- (개정내용) 심사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등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
 - ※ 사업계획서, 전기통신설의 보안대책, 국내외 규격, 연구개발 현황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부합되게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 (기대효과)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요청하는 사업자에게 심사 기준의 예측성을 높여주고,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심사기준 적용 방지

□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1. 10월 ~ 11월
-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 '11. 11월 ~ 12월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제출 : '12. 1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1. 디지털 전환 실적 관련 평가항목 신설

- (개정 사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노력을 독려하고 유료방송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촉구
- (개정 내용) '운영영역'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지상파는 '13년, SO·위성은 '15년 방송실적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배점은, 지상파TV 100점(총점 900점→1,000점), SO·위성 50점(총점 500→550점)

2. 인증방송장비 관련 평가 실시

- (개정 사유) 방송장비의 국내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를 유도
- (개정 내용) '운영영역'의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 방송기술투자 평가」 항목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제품 투자에 대해 평가를 추가
 - 배점은 지상파 TV 5점, 그 외 매체는 지상파 TV의 2/3로 환산

3. 종합편성 PP 관련

- (개정 사유) '11년 12월 방송 예정인 종편 PP에 대한 평가항목 마련이 필요
- (개정 내용) 모든 영역에서 지상파(900점)와 보도 PP(500점)사이의 중간적 배점을 적용하여 총점 700점으로 배점

- 매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영역의 '매체특성에 따른 편성 적정성' 항목에서 '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 기존 PP의 구매위주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편 PP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능력에 대한 평가(구매편성비율/제작편성비율)를 신설